

OTT '연애'에 빠지다

'환승연애' '솔로지옥' 등 인기 돌풍에 시즌3 방송 사랑·이별·재회 등 공감 비혼주의 흐름 속 대리만족 TV쇼 시청률 상위권

새해에도 몰릴듯 쏟아지는 연애프로그램들이 OTT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연애 프로그램은 사랑에 빠진 출연자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객관화해 볼 수 있는 거울이자, '비혼' 열풍 속에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창으로 다가온다.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과 같은 전통의 강호를 비롯해 '환승연애', '솔로지옥' 등 다양한 연애프로그램은 MZ세대 사이에서 '과몰입력'을 양산하며 연일 방송가에 쏟아지고 있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나란히 시즌3를 맞은 '환승연애'와 '솔로지옥'. 지난달 29일 티빙에서 새 시즌으로 돌아온 '환승연애'는 한 번 헤어진 연인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지, 새로운 사람에게 '환승'할지 고민하는 내용을 위주로 한다.

이와 맞물려 커플이 되어야만 발칙과 같은 공간인 외딴섬 '지옥도'를 탈출할 수 있다는 설정의 데이트 리얼리티 쇼 '솔로지옥'도 지난 달 시즌3로 돌아왔다. 솔로지옥은 2주 연속 글로벌 TOP10 TV쇼(비영어) 부문 4위를 기록하는 등 '대세'를 증명했다.

두 프로그램이 '혼풍'을 타고 있는 이유부터 새로운 시즌의 감상 포인트는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옛 연인을 다시 사랑할 수 있나요?" 환승연애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거듭되는 '선택'이 프로그램의 골자가 된다.

출연진들은 옛 연인인 'X'에게 남아있는 감정을 털어내고 새로운 사람에게 전념할지, 과거에 끊어졌던 매듭을 다시 묶어낼지의 기로에 놓인다. 새로운 연인에게 돌아가면 비유적 의미에서 '환승'을 택하는 것.

무엇보다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리얼리티'는 환승연애만의 감상 포인트. 출연진들이 교제하던 당시 실제 사진부터 영상, 손편지를 비롯해 연애기간, 만남의 계기와 이별 사유까지 낱알이 공개한다는 점은 여느 프로그램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 번 이별했던 연인이 재회 후 잘 될 확률은 희박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이별한 두 사

람은 서로의 결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신뢰가 무너진 사이에서 '옛정'을 토대로 믿음을 쌓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직접 관람해보니 출연진들이 만들어가는 서사와 미션들, 합속하며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는 재회에 합리적인 인과성을 부여하는 듯했다.

'환승연애'는 진짜 헤어진 커플을 섭외하기 위해 3만 명에 DM(메시지)을 보낼 만큼 지난 제작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같은 '검증'을 통해 방송에 출연하는 주인공들이기에 더 큰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

일반인 참가자들의 생활기를 밀착 카메라로 낱알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본의 '테라 하우스' 같은 프로그램도 연상해 볼 수 있다.

1~3화에서는 출연진들의 인터뷰, 현실 만남과 이별 스토리 등이 소개됐다. 교차편집을 도입해 누가 옛 연인 사이였는지 알 수 없게 유도하면서 'X(옛 연인)'를 추리하는 묘미를 제공한 점도 인상적.

시즌1, 2를 담당했던 이진주PD가 아닌 김인하PD가 연출을 맡았다는 사실도 이번 시즌만의 새로움이다. 이전 시즌에는 없던 연출인 '이별 택배' 등의 이벤트가 1화부터 등장해 시즌 3만의 재미를 '예고'했다.

'환연 신드롬'은 계속될 수 있을까. 매주 금요일마다 티빙에서 새로운 에피소드 공개 예정.

◇'도파민 파티'...천국과 지옥 오가는 솔로들의 화끈함

한편 솔로지옥은 출연자들의 과감한 표현, 육체미, '천국도'와 '지옥도'를 오간다는 설정 등에서 앞선 프로그램들보다 '매운 맛'

'솔로지옥'(위), '환승연애' (티빙·넷플릭스 제공)

으로 다가온다. 방송 초기에는 한국판 '투 핫'으로 평가받으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얻었지만, 출연진들이 셸्ली가 되거나 공중파에 출연하는 등 입소문을 타면서 세간의 걱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솔로지옥'에 있음을 입증했다.

솔로지옥은 솔로들이 '섬'에 표류한다는 설정 때문인지 비키니 차림이 자연스러웠다. 출연자들은 육체미를 과시하며 관능적인 매력을 여실히 뽐냈다.

남출(남성 출연자)들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팽팽한 긴장감, 경쟁구도를 자극하는 미션들도 이목을 끌었다. 시청자들은 출연자들 중에서 몰입 대상인 히로인(Heroine)을 설정하고, 그 히로인이 사랑을 쟁취해가는 모습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시즌에서 화두가 되는 인물은 단연 '이관희'다. 그가 세 여자와의 사각관계 중심에 있기도 하고, 농구선수로서 커리어도 주목을 받았기 때문일 터. 또 '애, 재, 재'라며 여성 출연자들을 지칭했던 모습은 구설수에 올라 한 차례 흥을 잃은 바 있다.

전남대 가정교육과 이서연 교수는 "비혼주의의 흐름 속에서 '연애감정'을 대리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동시에 미디어가 보여주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며 "자극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랑과 연애의 본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등장하면 청년층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효리 "나보다 게스트 빛나게 해야죠"

KBS 심야 음악 토크쇼로 첫 단독 MC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랑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요. 나이가 사십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그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웃음)"

가수 이효리(사진)가 지난 5일 밤 11시 20분, KBS 심야 음악 토크쇼 단독 MC로 방송에 돌아왔다.

이효리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KBS 2TV '더 시즌즈-이효리의 레드카펫' 제작발표회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 성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 시즌즈'는 매 시즌 새로운 MC가 진행을 맡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작년 2월 처음 방송됐다. 이효리는 박재범, 최정훈, 악뮤에 이어 네 번째로 MC를 맡았다.

이효리는 "제가 먼저 '더 시즌즈' MC를 맡아보고 싶다고 제작진에게 연락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젊은 친구들한테 음악적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는 사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10년을 살다 보니 인맥이 다 잘렸어요. (웃음) 프로그램을 통해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후배들의 조언도 받고 싶어요."

이효리는 과거 여러 예능 프로그램 MC로 활동했고 2012년에는 정재형과 함께 '정재형 이효리의 유앤아이' MC로도 활약했지만, 단독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효리는 "무대 위에 오르면 '주인공병'이 되질지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웃음) 나를 뽐내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힘을 전하는 M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 정말 성장해야 해요." /연합뉴스

골든디스크 대상, 음반 세븐틴·음원 뉴진스



걸그룹 '뉴진스'

그룹 세븐틴과 걸그룹 뉴진스가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 만다리'에서 음반과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을 각각 차지했다.

세븐틴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열 번째 미니음반 'FML'로 음반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들은 또한 음반 부문 본상과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추가했고, 유닛(소그룹) 부석순이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받으며 총 4관왕에 올랐다.

멤버 민규는 "멤버끼리 정상을 향해 달려가자고 말했는데, 지금 최고의 상을 받은 것 같아 영광스럽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승관 역시 "저희 팀이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

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미련하게, 열정 넘치게 음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최고의 히트곡 '디토'(Ditto)로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해린은 "저희 노래를 많은 분께서 좋아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도 매년 무대를 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노래를 많이 가지고 나올 테니 지금까지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인상은 그룹 제로베이스원과 히트곡 '큐피드'(CUPID)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은 피프티 퍼센티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